기획·제작 / 유희원 | YHW1130Y@GMAIL.COM PROJEXT \_ CI-ARA

#### UI / UX DESIGN PORTFOLIO.

2025.04



조용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감각과, 섬세한 디자인이 만나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 담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입니다. 이야기의 시작:"주제 선정"-----01

사용자의 마음 : "페르소나" ----- 02

**눈부신 결말:** "인사말" ----- 05

**UI / UX PROJECT PORTFOLIO** 

#### CONTENTS OVER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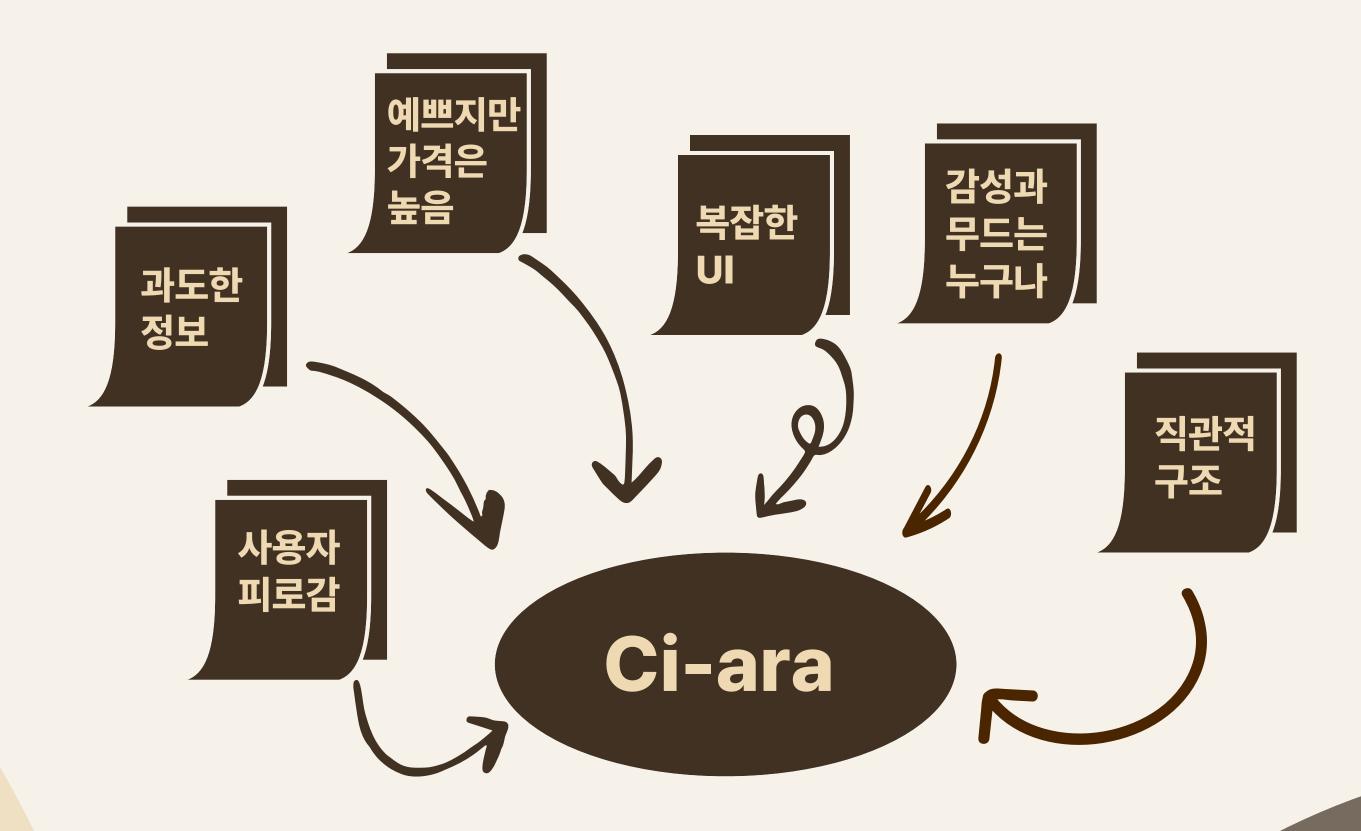
# WHY THIS?

요즘의 쇼핑몰은 복잡합니다. 정보는 많고, 과도한 겉치레에 정작 필요한 것은 묻히곤 합니다. 이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정보만,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한 저의 작은 저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.

그리고 감성 있는 가구 쇼핑몰들은 왜 항상 비싸야 할까요? 예쁘고 따뜻한 것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모든 이유를 담은 프로젝트, 그 이름이 바로 Ci-ara 입니다.

## THINKINGFLOW

브레인스토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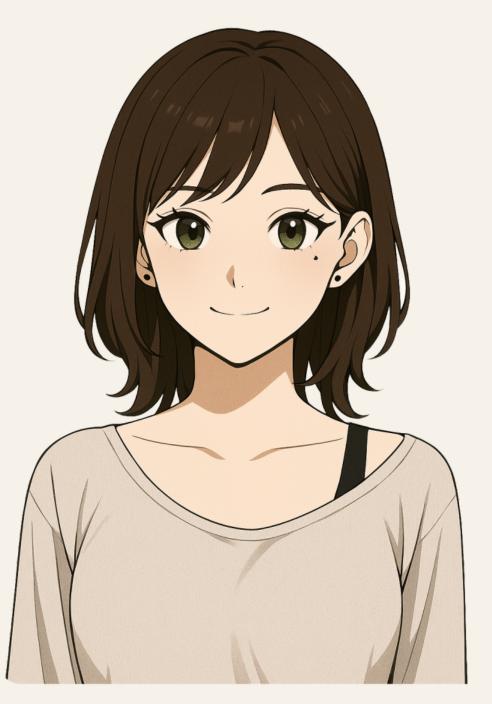
### PERSONA

성격:

"밝고 쾌할하며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이나 작업에 들어가면 몰입하는 스타일이다"

동기:

"첫 자취를 시작하게 된 이후, 초라한 자취방을 감성적인 가구들로 채우고 싶어졌다. 하지만 기존 쇼핑몰은 가격이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. 그래서, 예쁘면서도 저렴한 쇼핑몰을 찾기 시작했다."



이름 : 이하민

나이: 23세

직업:대학생

#### PERSONA

성격:

"가족에겐 다정하지만, 평소엔 과묵한 현장형 스타일. 전자기기나 인터넷엔 익숙하지 않다."

동기:

"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, 아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한 후 편안하고 예쁜 공간을 꾸미고 싶어졌다. 하지만 기존 쇼핑몰은 복잡해서,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을 찾고 있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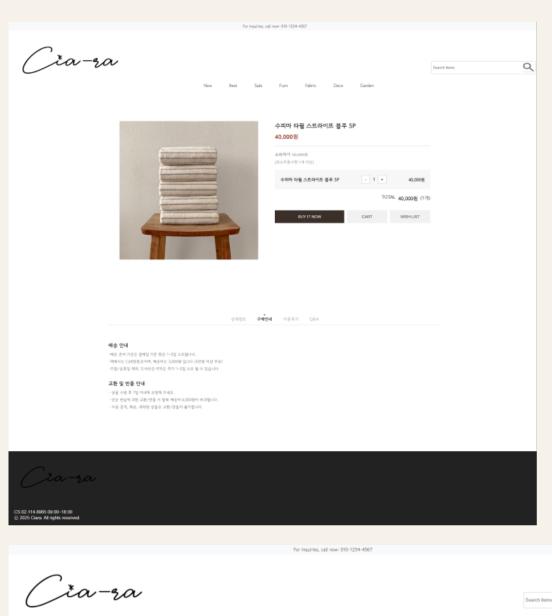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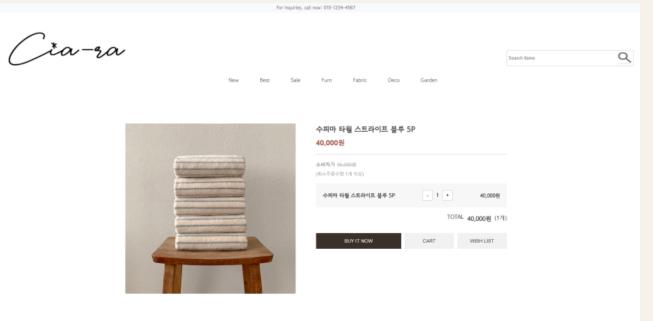
이름:임종민

나이:54

직업: 중견기업 부장







#### PROJECT PROTOTYPE

UI / UX PROJEXT.

## WRAP-UP

항상 사용자의 입장이었던 제가, 이제는 제작자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습니다. 아직 부족하여 의도대로 구현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, 의욕만 앞선 나머지 놓쳐버린 것들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작업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

"처음이니까 부족할 수 있지만, 처음이었기에 가장 뜨거웠다"는 걸 느꼈고,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, 더 깊게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 습니다.

더욱 증진해 저 자신과 모두가 만족할수 있을만한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.